

(9)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(18:1-19:38)

2)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/ (1) 아브라함의 간청 (18:16-33)

(2) 천사들이 롯을 구하다 (19:1-29)

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
 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
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

- 19:1-3/ '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': 방문자들에 대한 처우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.
 - 롯은 천사들에 대해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보통의 여행자들처럼 아브라함을 받아들임.
 - '성문에 앉아 있다가': 아브라함의 장막과 롯의 도시를 대조
 - '성문'은 롯의 소돔에서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암시 - 그러나 그는 외지인으로 취급당하며 멸시당함.
 - 성문 안이 성문 밖보다 더 위험하다는 역설.
 - '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': 천사의 사양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돋보이게 함.
 - 롯이 제안한 '종의 집'보다 천사가 택한 '거리'가 더 안전하다는 역설.
 - '롯이... 무교병을 구우니': 존귀한 손님에게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역설.

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
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

- 19:4-5/ '노소를 막론하고': 이들의 동성에 행위가 세대를 불문한 것임을 드러냄-성적 부도덕의 만연.
- '이끌어 내라': 이들의 노골적인 몰염치는 에스겔의 관심을 끌었음(겔 16:49-50).

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
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
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

- 19:6-8/ '문': 구원 받은 자와 저주 받은 자의 경계; 의인과 악인, 시민과 천민 사이의 경계; 천사와 두 딸의 순결을 보호.
- '내 친구들이여': 롯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며 스스로 소돔 주민이라고 믿었음.
- 그러나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았음.
- '두 딸이 있노라... 좋을 대로 행하고':
 - * 롯은 딸들을 생명뿐 아니라 유산에 대한 소망까지 위험에 빠뜨
 - 그러나 산속 동굴에서 이들의 관계는 역전됨.
 - * 롯은 자식 보호보다 환대를 더 중시함으로써 도덕의 기준에 실패했음을 암시.
 - 자신의 정의감을 침해하면서 낯선 자들에게 체면을 유지하려함.

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

- 19:9/ '물러나라, 밀치며': 롯의 거절에 말과 물리적 공격으로 대응.
- '거류하면서... 법관이 되려': 똑똑한 체 하는 자, 독선적인 떠돌이, 외지인으로 심판자를 자칭, 롯에 대한 조롱.
- 그러나 롯에게 행한 일로 소돔은 심판을 받음으로 이들의 조롱은 현실이 됨.

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
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

- 19:10-11/ '그 눈을 어둡게 하니': 천사의 개입으로 롯이 피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간을 확보.

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
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라
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

- 19:12-14/ ‘이끌어 내라’: 롯이 천사를 지킨 것으로 인해 천사는 롯의 가족을 배려.
 ‘이 곳을 멸하시려고’: 이 장소에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여, 소돔의 혐의가 진실임이 밝혀짐.
 ‘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’: 롯을 멸시함으로 소돔 사람들의 눈이 멀었듯 사위들도 눈이 멀었음이 드러남.
 - 아울러 롯의 무능함도 암시.

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
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였더라
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

- 19:15-17/ ‘동틀 때에’: 천사들은 롯과 롯의 가족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뒤 도시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함.
 ‘이끌어 내라(서둘러 데려가라), 속히 도망하라, 지체하매’: 강권하는 천사와 망설이는 롯.
 ‘성 밖에 두매’: 이제는 성 바깥이 더 안전함.
 ‘도망(말레트)’: 5회 등장. 말라트는 롯의 언어유희-롯이 도망하는데 전혀 빠르지 않음.
 ‘두었다(누아흐)’: 롯에 대한 주님의 연민 때문에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을 바깥에서 쉬게(노아)함.
 ‘돌아 봄, 들에 머물, 멸망 / 도망, 산, 생명을 보존’: 산은 고립된 피난처로 안전을 보장(수 2:16, 삼상 22:1 등)

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
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
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

- 19:18-20: ‘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,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’:
 * 롯의 반대 제안.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에 은신할 것을 요청.
 *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듭 호소한 것과 소수를 위해 악인을 보존하는 공의를 주장했던 요구를 연상.
 - 롯의 소알 피신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임을 증거.

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
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

- 19:21-22/ ‘네 소원을 들었은즉(허락-나사)’: 의로운 자를 보존(나사)하신다는 주님의 서약을 연상(18:16).
 ‘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’: 하나님의 은혜를 수행하는 것 때문에 멸망의 시간표가 일시적으로 중단.

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
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
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
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

- 19:23-26/ ‘해가 돋았더라’: * 방문자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착한 지 만 하루가 지남.
 * 범죄자들은 밤의 장막 아래에서 죄를 범했으나 낮의 빛 아래에서 심판 받음.
 ‘하늘, 불, 비같이 내리사’:

- * 노아의 홍수 묘사. 종말에 있을 불 심판에 대한 예고(벧후 2:6-9).
- * 노아와 롯의 재앙은 인자의 도레가 갑작스러울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고(눅 17:26-30).
- ‘불타는 유행’: ‘유행’은 후대의 기록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함(시 11:6; 사 30:33; 34:9).
- ‘롯의 아내는... 소금 기둥이 되었다’:
- *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으로, 아브람이 구출한 여인들 가운데 있었을 것(14:16).
- * 불순종의 결과로 언급되는 충격적인 사례가 됨(눅 17:28-29, 32).

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
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
 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

- 19:27-29/ ‘아브라함이... 여호와 앞에... 이르러’: 소돔 계시로 거슬러 올라감으로 완전한 순환이 이뤄짐.
- ‘옹기 가마(옹광로)의 연기 같이’: 하나님의 현현, 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.
- ‘아브라함을 생각하사.. 롯을.. 내보내셨더라’:
- *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로 인한 것
 - 롯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중재자로 선택하시고 그 지위를 주신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인한 구원.
- * ‘생각하사(기억하사)’: 충성을 뜻하는 전형적인 언약 용어. 노아에게 베푼 구원과 평행.
- 소돔 사건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했다는 점으로 시작하고 마침.
- ‘거주하는(야샤브)’: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는 13장의 핵심어로 롯의 어리석음을 강조.

3) 롯의 아들들의 출생(19:30-38)

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

- 19:30/ ‘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’: ‘산’은 천사가 처음 지시했던 곳. 소알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함.
- ‘굴에 거주하였더니(야샤브)’: 롯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을 암시.

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
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
 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
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
 35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

- 19:31-35/ ‘늙으셨고, 없으니’: 롯의 나이와 은둔 생활을 한 가족 혈통의 종말을 의미.
- ‘술을 마시게 하고’: 롯의 굴욕은 노아를 생각나게 함. 노아는 아들의 기만을 알았던 반면 롯은 깨닫지 못함.

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
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
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

- 19:36-38/ ‘모압’: ‘내 아버지에게서’라는 의미. ‘벤암미’: 여동생에게서 나온 아이.
- * 롯의 후손은 이스라엘에게서 특별한 양보를 받음.
 - 그러나 근친상간이라는 근원은 거룩한 여호와와의 총회에서 제외되는 근거.
- * 모압과 암몬(트랜스 요르단 국가들)과 이스라엘은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적대감을 표출.
- * 하나님은 롯의 후손에게 새롭게 은총을 베풀 때 일어날 회복의 시대를 예고(렘 48:7; 49:6).
- * 모압 여인 롯과 유다의 후손 보아스의 결혼으로 두 가문이 화해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생산.
- *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늙었고 사라가 가임기가 지났으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음.
- * 롯의 평원 선택은 소유의 상실과 유산의 더럽힘을 낳음.

(10) 그랄의 아브라함과 사라: 언약의 보존(20:1-18)

1)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다 (20:1-7)

중요내용

1. 아비멜렉의 반전은 사악한 소동인이 거역과 대조를 이룸.
2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라 나라에 대한 약속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음(12:3; 18:18; 22:18).
- 아브라함이 블레셋인에 대한 저주와 축복을 야기

-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
- 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

- 20:1-2/ '네게브 땅으로 옮겨가':
 - * 12:9 애굽을 향한 아브라함의 첫 여정을 묘사한 것과 같은 용어.
 - *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은 외지인인 아브라함의 방랑 생활.
 - '그랄 왕 아비멜렉': '아비멜렉'은 그랄 왕의 호칭일 가능성이 큼.
 - '사라를 데려갔더니': 애굽 사건과는 달리 사라의 외모에 대해 침묵
 - 이 결혼이 정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결혼임을 암시.

-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

- 20:3/ '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':
 - * 사망 선고의 이유-혼인한 여인을 취했기 때문.
 - * 아비멜렉의 반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간음은 불법이었음을 암시.

-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
-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

- 20:4/ '가까이 하지(가라브) 아니하였으므로': '가라브'는 히브리 율법에서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킴.
 - * 히타이트 법률에서 간음한 자가 여인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무죄를 인정 받음.
 - 하나님은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는데, 여인을 돌려보내야 하고 남편과도 화해해야 함.
 - '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려 하시나이까':
 - * 하나님의 정의를 배경으로 반론을 제기.
 - * 소동의 의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심을 회상케 함.
 - * '백성(고이)':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세상의 민족들에 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전조.
 - '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': 자신의 결백을 강조해서 호소.

-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

- 20:6/ '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': 교차대칭구조에서 중심.
 - '나도 너를 막아':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(아마도 병을 통해) 막으셨음.
 -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'깨끗한 양심'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이뤄진 것.

-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

- 20:7/ '돌려보내라, 기도하리니': 아비멜렉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. 보상과 중재.
 - '그는 선지자라': 성경에 처음 등장. 롯-소돔 사건에 이어 드러난 아브라함의 중재적 기능.
 -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한 최초의 인물(18:22-23).
 -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할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계획을 알게 하심.
 - 아비멜렉의 "나라"는 하나님이 선택한 중재자의 자비 없이 생존할 수 없음.
 - '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': 에덴의 금지령, 모세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처벌과 같은 표현.

2)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다 (20:8-16)

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하였더라
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 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
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

- 20:8-10/ ‘그 날 아침에 일찍이... 심히 두려워 하였더라’:
 - * 아비멜렉의 꿈 이야기에 대한 이 도시민들의 엄청난 두려움-소돔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을 암시.
 - ‘네가 어찌하여... 행하였느냐?': 에덴에서 하나님의 범행 폭로를 연상.
 - ‘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?': 아브라함의 계약은 보다 폭넓은 영향을 끼침.
 - ‘무슨 죄를 범하였기에, 합당하지 않은 일': 아브라함의 부당함을 강조.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반영.

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 하였음이었
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
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 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라 하였었노라

- 20:11-13/ ‘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’: 왕의 꾸짖음에 그랄을 비난하는 것으로 응수.
 -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변명: 아비멜렉과 그랄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음.
 - ‘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’: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변명. 당시 흔했던 동족혼에 의한 결혼이었음.
 - ‘우리의 가는 곳마다... 오라비라 하라’: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변명.
 - 나그네로써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 방식이었다는 것.
 - 사라는 배우자에 대한 순종으로 이 공모에 가담한 것(벧전 3:6).

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
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
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

- 20:14-16/ ‘양과 소와 종들과 사라, 땅, 은 천 개’:
 - *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배상.
 - * 땅을 준 것은 애굽에서 쫓아낸 바로와 대비되는 행동-아브라함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함.
 - 이때 얻은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소유가 되는 우물을 확보(21:30-31).
 - ‘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’: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았다는 보증.
 - ‘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’:
 - * 왕은 합의하에 부부에게 진 빚을 정리.
 - *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저자세는 아브라함의 국제적인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일조.

3)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치유하다(20:17-18)

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
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

- 20:17-18/ ‘하나님께 기도하매’: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도 행위.
 - ‘하나님이... 치료하사’: 아브라함으로 인해 닫은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하나님이 다시 여심.
 - ‘사라의 일로... 닫으셨음이라’: * 이삭이 진실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임을 보증.
 - * 사라의 성적 순결에 대한 본문의 관심.
 - * 사라의 신비로운 임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증명.